

#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Working Mothe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elf-Efficacy on the Child-Rearing Practices

천안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문혁준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onan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Moon, Hyuk-Jun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ull-time working mother's family on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s well as child-rearing practice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with perceived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aring practice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00 working mothers of two to six year old children attending employer sponsored child care center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Full-time working mothers' child-rearing practices were influenced by the age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al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family income, age of the child, and number of children in the family.
- 2) The more working mothers perceived parenting efficacy, the more mothers utilized effective child-rearing practices.
- 3) Age of the child, maternal education level, mothers with levels of perceived parenting efficac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full-time working mothers' child-rearing practices.

## I. 서론

부모 역할의 수행은 성인기의 가장 어렵고도 복잡한 과업으로 묘사되어 왔다. 특히 가정과 직장 생활의 이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취업모의 경우 퇴근 후에 직장 생활의 피로함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할애할 관심과 노력, 시간을 빼앗기기도 하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에 대해 어머니로서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고되어 왔다. 또한 이 두 역할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자녀 양육 행동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Harrell & Ridley, 1975). 이는 전문직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이영(1986)의 연구에서도 자녀 교육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녀 교육 및 양육이 취업모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Hamner와 Turner (1985)는 아동기 초기의 효과적인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하여 아동이 빈번하게 격리되는 상황에서 질 높은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취업모의 급증은 현대 가족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들 수 있다. 통계청(1996)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2%에 이르렀으며, 여성 취업자의 74.8%가 기혼 여성이며, 그 중 60% 이상이 학령 전기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이다. 즉 직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는 비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더 공격적이며 덜 순종적이며(Clarke-Stewart, 1989), 특히 남아의 경우는 지적 능력과 학업 성취면에서 뒤떨어진다는 것이다(Bronfenbrenner, 1986; Gottfried et al., 1988).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견해이다. 예를 들면 취업모의 자녀 특히 여아의 경우 비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더 독립적이며 학업과 직업에 대한 열망이 높으며,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적다는 것이다(Hoffman, 1989). 그러나 현재까지 대

부분의 연구들이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행동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온 것에 비해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업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과거 50년 동안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의 인격 형성과 행동 양식 발달에 중요한 변수임이 입증되었다. 먼저 긍정적인 양육 태도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권위 있는 부모일수록(authoritative) 자녀의 수단적 역량이 뛰어나고, 사회적인 자신감의 수준이 높으며(Baumrind, 1991), 청소년기에 이르러 훨씬 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학업 생활에 흥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ombusch et al., 1987; Lamborn et al., 1991; Steinberg et al., 1989). 또한 부모가 따뜻하고 반응적일수록 아동은 지적 수준이 높고(Estrda et al., 1987), 이타적이며, 순종적이고, 강압적이지 않으며(Zahn-Waxler et al., 1979), 자아 존중감이 높고, 남의 입장을 고려하는 능력을 가지며(Eisenberg et al., 1992), 본인의 성(性)에 대해 만족하며, 내적 동기유발에 의해 규범을 따르는 아동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Brody & Shaffer, 1982) 나타났다. Belsky(1990)는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 태도는 유아의 사려성, 이타성 및 낮은 공격성과 정적 관계를 보이며, 보다 관대하고 위로적이며 협동적인 행동 특성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Franz와 그의 동료들의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유아기의 부모 양육 태도가 성인기의 결혼 생활과 사회적 대인관계에 기여하는 중요한 예언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Franz et al., 1991). 즉 민주적인 부모를 가진 아동은 평균36년의 세월이 경과된 후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하고 결혼 수명이 더 길며, 가까운 친구들과 더욱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수용성은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정영숙, 1993), 어머니의 민주적인 양육 태도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 중 책임성, 사교성, 자체성을 높여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인자, 1988).

이와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양육 태도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형제간에 더욱 공격적이며(MacKinnon-Lewis et al, 1997), 자신의 생활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Donald, 1992). 또한 냉정하고 거부적인 부모들이 힘에 의존한 양육 태도 특히 신체적인 체벌을 사용하며 자녀의 공격적인 충동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아동으로 성장할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였다(Dishion, 1990; Parke & Slaby, 1983). 아울러, 무관심한 부모의 자녀는 사회적인 측면과 학업 성취면에서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매우 적대적이며 반항적인 경향을 보이고, 또한 알콜 중독과 약물 복용, 문란한 성 관계, 무단 결석, 범죄 행위 등 여러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amborn et al, 1991; Patterson et al, 1989).

한편 과거에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부모 양육 태도에 선행되는 변인에 대한 연구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유아의 성별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더 엄격하고 통제적이며 딸에게는 따뜻하며 수용적이라는 결과는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 나타났다(Fristod & Karpowitz, 1988; Kuczynski, 1984; 권연희, 1995).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있어 성별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Baumrind, 1971; Magolin & Patterson, 1975).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 수록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연미희, 1998).

부모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어머니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10대) 또는 너무 많지(30대 후반) 않고 적절할 때, 어머니는 부모 역할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그 역할 수행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녀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다(Arlene et al, 1982). 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부모의 양육 태도는 지지적이며 엄격한 훈육 방식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mons et al, 1993). 국내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

을수록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며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종혜, 1980; 이은수, 1985).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들은 더 제한적이며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규율을 세우고 힘에 의존한 훈육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들은 따뜻함과 애정을 많이 표현하며 추론 형태의 훈육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lly et al, 1992; Maccoby, 1980). 이경우(1989)는 저소득층 취업모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 방법에 있어 주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자녀와 대화나 상호작용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다.

자녀 수에 있어서 한종혜(1980)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부모의 양육 태도는 더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라고 했으나, 이은수(1985)는 자녀 수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더 애정적이라고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최근에 와서 부모의 양육 행동과 연관되는 변인으로 효능감과 같은 부모의 인지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나(Melson et al, 1993; Miller, 1988), 현재까지 부모 효능감과 부모의 양육 태도를 연관시킨 실증적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 효능감이란 용어는 Bandura(1977)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자기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인간의 행동의 변화는 환경적 요인 같은 외적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과정을 매개로 일어난다고 강조하였다. 즉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 효능감이 강하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자기 효능감이 약하면 문제 상황을 회피하거나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는 Adams와 Bandura(1979)의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신념이 강할수록 높은 성취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는 주장이며 또한 그 원인으로써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맡겨진 일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된 자기 효능감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련하여 부모의 효능감이 강조되는 이유는 부모 양육 태도의 잠재적 근원으로 부모가 지각하는 자기 효능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Johnston과 Mash(1989)는 부모 효능감을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적절한 부모 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희정·이숙(199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바람직한 자녀양육 행동과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과 같이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특히 직장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전일제 취업모의 양육 태도에 관련된 변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 태도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알아봄으로써 취업모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부모의 효능감에 대한 자기 인지가 취업모의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모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계획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녀의 성별에 따라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족의 구성 형태에 따라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연령, 교육 수준, 직업, 부부의 수입, 자녀 연령, 자녀 수, 자녀와 보내는 시간 수는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4〉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은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5〉 부·모의 연령, 교육 수준, 직업, 부

부의 수입, 자녀 연령, 성별, 자녀 수, 가족 구성 형태, 자녀와 보내는 시간 수, 부모 효능감 변인이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5개의 직장 보육 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100명의 취업모로 구성되었다. 대상 어머니의 자녀의 연령은 2세 22명, 3세 22명, 4세 26명, 5세 20명, 6세 10명이며, 성별은 남아 58명, 여아 42명이었다. 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2.5세(SD=3.35), 남편은 35.2세(SD=3.32)였다. 어머니의 학력을 보면 고졸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사무직이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상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에서 4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200-299만원 사이가 28%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 100

변 인	구 분	어머니 아버지	
		빈도	빈도
교육수준	고졸 이하	7	4
	고졸	43	26
	전문대졸 또는 대학 중퇴	16	12
	대졸	26	43
	대학원졸	8	15
직업	생산/노무자	21	10
	판매서비스	13	8
	사무직	31	30
	관리직	0	14
	전문직	30	31
	기타	5	7
부부의 수입	100 만원 미만	18	
	100 - 199 만원	18	
	200 - 299 만원	28	
	300 - 399 만원	21	
	400만원 이상	15	

2. 연구 방법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직장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취업모들의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질문지 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질문지는 1998년 7월에 배부되었고 회수율은 70%로 총 100부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척도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사용하였다. 자녀의 성별과 가족 형태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 태도와 효능감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에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부모의 양육 태도와 부모효능감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이 부모의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계적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을 통해 검증하였다.

3. 측정 도구

1) 부모 효능감

부모 효능감은 Giband-Wallaston과 Wandersman (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부정적으로 서술된 2문항은 역산하였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부모로서 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82였다.

2)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rnold와 그의 동료들(1993)에 의해 제작된 Parenting Scale이 번안하여 수정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효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척도에서 효율적인 부모 양육 태도는 권위가 있으며, 민주적이며, 일관성이 있는 아동 중심적인 양육 태도를 의미하며, 비효율적인 부모 양육 태도는 방임적이고, 지나치게 수용적이며, 일관성이 없고, 위협적이며 신체 체벌과 욕설 사용 등을 의미한다.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5점에서 75점까지의 범위를 갖고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는 .74이었다.

III. 결 과

1. 아동의 성별, 가족 구성 형태에 따른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와 부모 효능감

아동의 성별 및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아를 가진 취업모가 남아를 가진 취업모에 비해 효율적인 양육 태도 점수(여아: M= 38.44; 남아: M= 39.34)와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여아: M= 35.88; 남아: M= 34.91)에 있어 약간의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2> 자녀의 성별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 태도와 부모 효능감

	남아(N=58)		여아(N=42)		T
	M	SD	M	SD	
양육태도	39.34	6.05	38.44	6.75	.69
효능감	34.91	5.51	35.88	5.35	-.87

<표 3> 가족의 구성 형태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 태도와 부모 효능감

	핵가족(N=71)		대가족(N=29)		T
	M	SD	M	SD	
양육태도	38.56	6.32	40.00	6.37	-1.01
효능감	35.34	5.43	35.25	5.57	.07

또한 <표 3>에서와 같이 핵가족의 취업모가 대가족의 취업모에 비해 효율적인 양육 태도 점수(핵가족: M= 38.56; 대가족: M=40.00)와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핵가족: M=35.34; 대가족: M=35.25)에 있어 약간의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t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 효능감과 자녀 양육 태도간의 관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과 자녀 양육 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 효능감과의 관계는 <표 4>에서 보면 아버지의 학력은  $p<.05$ 수준에서 취업모의 부모 효능감과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 $r=.24$ )을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p<.10$ 수준에서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가 자신에 대해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은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간의 관계는 <표 4>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연령( $r=.26, p<.01$ ), 아버지의 연령( $r=.30, p<.01$ ), 어머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 효능감과 양육 태도간의 상관계수

독립변인	부모 효능감	취업모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연령	.01	.26**
아버지의 연령	-.11	.30**
어머니의 학력	.16	-.46***
아버지의 학력	.24*	-.34**
어머니의 직업	.17	-.36***
아버지의 직업	.14	-.26**
부부 수입	.09	-.33**
자녀 수	-.13	.33**
자녀연령	-.11	.46***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수	.08	-.17

\* $p<.05$  \*\* $p<.01$  \*\*\* $p<.001$ .

니의 학력( $r=-.46, p<.001$ ), 아버지의 학력( $r=-.34, p<.01$ ), 어머니의 직업( $r=-.36, p<.001$ ), 아버지의 직업( $r=-.26, p<.01$ ), 부부 수입( $r=-.33, p<.01$ ), 자녀 수( $r=.33, p<.01$ ), 자녀 연령( $r=.46, p<.001$ )들의 변인들은 취업모의 자녀양육 태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 자녀 수, 자녀 연령은 비효율적인 자녀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와 아버지의 직업, 부부 수입은 효율적인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수와 효율적인 자녀 양육태도와는 부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유의한 상관은 발견되지 않았다.

## 3. 부모 효능감과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와의 관계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과 자녀 양육 태도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적 상관관계( $r=-.31, p<.01$ )를 나타내었다. 즉 취업모가 자신에 대해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함에 따라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는 더 효율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취업모의 부모 효능감과 자녀 양육태도간의 상관계수

변인	효능감
자녀 양육 태도	-.31**

\*\* $p<.01$

## 4.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 효능감 변인의 영향력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변인의 선택은 stepwise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과 어머니의 학력은 취업모의 자녀 양육태도를 30% 설명해 주며, 취업모가 지각하는 자신에 대한

〈표 6〉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아동의 연령	.158	.376***	.153	.365***
어머니의 학력	-1.52	-.286**	-1.27	-.239*
부모의 자기 효능감			-.313	-.269**
Sum of Squares	964.62		1192.21	
R <sup>2</sup>	.30***		.37***	
R <sup>2</sup> 의 증가량			.07*	

\*p&lt;.05 \*\*p&lt;.01 \*\*\*p&lt;.001

부모 효능감이 추가됨으로써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 변량의 37%를 설명하였다. Model 2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 어머니의 학력,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이 취업모의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모가 지각하는 자신에 대한 부모 효능감이 높을수록 보다 효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은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 가족에 있어 자녀의 양육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고,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과 자녀 양육 태도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취업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결과와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 태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몇몇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연미희, 1998; 최시원, 1997). 뿐만 아니라 핵가

족의 취업모와 대가족의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이 적어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며, 직업이 전문직이며, 수입이 많아짐에 따라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는 보다 효율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 중심이 아닌 부모 중심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Fox, 1995; Kelly et al., 1992)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사회계층이 높은 어머니는 사회계층이 낮은 어머니에 비해 더 애정적, 민주적, 합리적,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의 양육 태도를 보인다는 많은 선행 연구들(Jones et al., 1980; 오왕목, 1984; 신경중, 1993)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변인들이 취업모의 양육 태도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은 취업모 가족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원영(1983)의 연구에서 보고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거부적인 태도와 낮은 아버지 직업의 사회 경제적 지위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아울러 중·상류층의 어머니와 비교하여 저소득층의 취업모들이 더 비효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McGillicuddy-De Lisi(1980)가 제시한 저소득층의 어머니는 중·상류층의 어머니에 비해 어머니 자신이 자녀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무력감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되어 질 수도 있다.

둘째, 취업모의 양육 태도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효율적인 양육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권위주의적이 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모들이 자녀에게 더 많은 행동상의 규제를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최시원(199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4세 아동에게는 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반면 5세 아동에게는 애정을 덜 주면서도 통제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취업모가 비효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녀 수

가 많으면 부모가 수행해야 할 역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주부의 가사 노동 시간과 가사 노동 시간 관리 전략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즉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막내 자녀의 연령이 적을 수록, 가계 소득이 적을 수록, 주부의 교육 수준이 낮고 연령이 많을 수록, 주부의 가사 노동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Nickols & Fox, 1983; 한경미, 1989), 주부의 교육 수준이 높고, 월평균 수입이 높으며, 전문직 취업 주부일수록 가사 노동 시간 관리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채옥희, 1997)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가사 노동 시간과 시간 관리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취업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적을 수록 부모 역할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에서(Mondell & Tyler, 1981; 조복희·현은강, 1994; Guidubaldi & Cleminshaw, 1989) 보여 주듯이, 부모의 역할 만족도와 자녀 양육 태도간에 밀접한 관계 여부가 주목되어 진다.

셋째, 취업모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취업모가 지각하는 자신에 대한 부모 효능감간의 관계는 유일하게 아버지의 학력만이 부모 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버지의 요인이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취업모가 지각하는 자신에 대한 부모 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과 자녀 양육 태도는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취업모가 자신의 부모 효능감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가가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모가 지각하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자녀의 연령이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과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도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취업모가 지각하는 자신에 대한 부모 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모의 자녀 양육태도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의 양육 태도는 한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루어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 부부 수입, 자녀 수, 자녀 연령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둘째,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이 높을 수록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는 효율적이다.

셋째, 취업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은 자녀의 연령, 어머니의 학력 그리고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이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 효능감이 높을 수록 취업모의 양육 태도는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 직장 보육 시설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취업모의 양육 태도와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 대상의 주관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직접 관찰과 면담을 병행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 행동에 있어 각기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 결과(문혁준, 1997)와 취업모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는 시점에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

버지를 포함하는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포함시키지 못했던 어머니 취업 변인들 특히, 취업모의 직업 만족도 변인을 연결시켜 좀 더 종합적인 측면에서 취업모의 자녀 양육 태도가 검토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권연희(1995).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문혁준(1997).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01.
- 3) 신경종(1993).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연미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7), 111-122.
- 5) 오왕목(1984). 사회계층에 따른 육아 방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우희정·이숙(1994). 가정 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 71-90.
- 7) 이경우(1989). 가정·교육·탁아의 본질, 아동의 권리: 가정·교육·탁아, 한국 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 한국아동학회 공동학술심포지엄, 3-37.
- 8) 이 영(1986). 전문직 취업모의 자녀 관리 현황 조사. 아동학회지, 7(1), 49-63.
- 9)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 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0) 이은수(1985).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정영숙(1993). 가족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2) 조복희·현은강(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13) 채옥희(1997). 취업주부 가사노동의 시간 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3-26.
- 14) 최시원(1997).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통계청.
- 16) 한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13.
- 17) 한인자(1988).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 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 Arlene, S. R., Robert, B. B., Keith, A. C., Mark, T. G., & Nancy, M. R. (1982). Effect of maternal age on parenting rol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627-634.
- 20) Arnold, D. S., O'Leary, S. G., Wolff, L. S., & Acker, M. M. (1993). The parenting scale: A measure of dysfunctional parenting in discipline situ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5, 137-144.
- 21)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22)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 Pt. 2).
- 23) Baumrind, D. (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In P. A. Cowan & E. M. Hetherington(Eds.), *Family transitions*. Hillsdale, NJ: Erlbaum.
- 24) Belsky, J. (1990). Parental and nonparental child car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3, 885-903.
- 25) Brody, G. H., & Shaffer, D. R. (1982). Contributions of parents and peers to children's moral socialization. *Developmental Review*, 2, 31-75.

- 26)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 27) Clake-Stewart, K. A. (1989). Infant day care: Maligned or malignant? *American Psychologist*, 44, 266-273.
- 28) Dishon, T. J. (1990). The family ecology of boy's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874-892.
- 29) Dornbusch, S. M., Ritter, P. L., Leiderman, P. H., Roberts, D. F., & Fraleigh, M. J. (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30)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Troyer, D., Speer, A. L., Karbon, M., & Switzer, G. (1992). The relations of maternal practices and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 583-602.
- 31) Estrada, P., Arsenio, W. F., Hess, R. D., & Holloway, S. D. (1987). Affective quality of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Longitudinal consequences for children's school-relevant cognitive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10-215.
- 32) Fox, R. L. (1995). Maternal factors related to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al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 431-441.
- 33) Franz, C. E., McClelland, D. C., & Weinberger, J. (1991). Childhood antecedents of conventional social accomplishment in middle adults: A 36-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86-595.
- 34) Fristod, M. A., & Karpowitz, D. H. (1988). Norms for the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modified form. *Psychological Reports*, 62, 665-666.
- 35) Giban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36) Gottfried, A. E., Gottfried, A. W., & Bathurst, K. (1988). Maternal employment, family environ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Infancy through the school years. In A. E. Gottfried & A. W. Gottfried (Ed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Longitudinal research*. New York: Plenum
- 37) Guidubaldi, J., & Cleminshaw, H. K.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satisfaction scale. In M. J. Fine (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contemporary perspectives* (pp. 257-277). San Diego: Academic Press.
- 38) Hamner, T. J., & Turner, P. H. (1985).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N. Y. : Prentice-Hall
- 39) Harrell, J. E., & Ridley, C. A. (1975). Substitute child care, maternal employment, and the quality of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556-564.
- 40) Hoffman, L. W. (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83-292.
- 41)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42) Jones, D. C., Rickel, A. U., & Smith, R. L. (1980).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and social problem-solving strategies among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6(3), 241-242.
- 43) Kelly, M. L., Power, T. G., & Wimbush, D. D. (1992). Determinants of disciplinary practices in low-income black mothers. *Child Development*, 63, 573-582.
- 44) Kuczynski, L. (1984). Socialization goal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strategies for long-term and short-term compliance. *Developmental*

- Psychology*, 20, 1061-1073.
- 45)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ed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46)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 47) Mackinnon-Lewis, C., Starnes, R., Volling, B., & Johnson, S. (1997). Perceptions of parenting as predictors of boys' sibling and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24-1031.
- 48) Magolin, G., & Patterson, G. R. (1975). Differential consequences provided by mothers and fathers from their sons and daugh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1(4), 537-538.
- 49) McDonald, K. (1992). Warmth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An evolutiona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3, 753-773.
- 50) McGillicuddy-De Lisi, A. V. (1980). The role of beliefs systems in the family as a system of mutual influences. *Family Relations*, 29, 317-323.
- 51) Melson, G. F., Ladd, G. W., & Hsu, H. (1993). Maternal support networks, maternal cognitions,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401-1417.
- 52)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53)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54) Nickols, S. Y., & Fox, K. D. (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of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197-208.
- 55)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547-641). New York: Wiley.
- 56)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57) Simons, R. L., Lorenz, F. O., Wu, C. I., & Conger, R. D. (1993). Social network and marital support as mediations and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368-381.
- 58) Steinberg, L., Elmen, J. D., & Mounts, N. S.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logic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1424-1436.
- 59) Zahn-Waxler, C., Radke-Yarrow, M., & King, R. A. (1979). Child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s towards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50, 319-330.